

# 익산, 교육도시 명성 되찾는다

### 전북대학교 · 익산고 정원 확대...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 강화

익산시가 '명품 교육도시' 위상을 되찾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내년 전북대학교와 익산고등학교의 정원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인재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전북대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일한 과학고로 미래 기초과학 분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국 20개 과학고 중 카이스트(KAIST) 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과학고 특성상 3학년이 아닌 2학년 시기에 정원의 40% 이상이 카이스트나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등으로 조

기 진학한다. 올해 정원 57명 중 17명이 카이스트에 입학해 카이스트 진학률 29.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복할 성적을 토대로 전북대학교는 내년 학급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학년당 3학급에서 2배인 6학급으로 증설해 전교생 총원을 150명에서 288명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을 비롯해 전북의 많은 과학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금마면에 나란히 위치한 익산고등학교도 내년 반별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28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익산고는 의·치·약학 대학 진학률이 높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 의과대 14명, 지난해 의과대학 13명, 올해 의·치·약학 대학에 18명(16.5%)이 진학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포함해 다수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상당하다. 익산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지성과 체력을 겸비한 교육과정인 특징이다. 그 일환으로 1·2학년 재학생 모두가 검도 수업에 참여해 검도 유단자로 졸업하게 된다. 시는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익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청사진을 그려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내 유일의 국산맥이인 '군산맥'이와 지역 농업과 연계한 로컬 수제맥주로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군산시가 제6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KIBEX 2024)에서 업계 관계자와 맥주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 군산, 맥주박람회서 브랜드 가치 UP

### 국내 유일 국산맥이 로컬 수제맥주로 관람객 발길 줄이어

국내 유일의 국산맥이인 '군산맥'이와 지역 농업과 연계한 로컬 수제맥주로 도시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군산시가 제6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KIBEX 2024)에서 업계 관계자와 맥주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6회 대한민국 맥주박람회(KIBEX 2024)'에서 군산시는 군산의 맥이 및 수제맥주,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인기를 얻었다. 그간 전북 군산시는 지역농업과 연계된 '수제맥주'로 이웃 전주 가맥의 전국적 명성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맥주보리 재배에서 맥아 가공, 맥주 양조, 판매까지 이어지는 수제맥주의 일괄 생산·판매 체계는 지역농업과 청년창업, 도시재생이 상생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수제맥주 업계는 물론 많은 맥주 애호가들로부터 수제맥주 일반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군산시답게 홍보관은 박람회 기간 내내 24개 업체와 군산맥이 구매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1인8천여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군산 수제맥주 2개 업체도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개막일 행사에 참석한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농업무역관장 리사 일렌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 부시장은 지난해 군산시가 미국대사관과 군산맥이로 만든 한미동맹 기념맥주 '동맹 페일'에 일괄을 매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제작을 연례화하여, 양 기관의 우호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6월에 개최되는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도 미대사관 직원들을 초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농업·농촌 미래 견인할 청년후계농 육성

### 신규 청년후계농 65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정책자금 융자 등 지원

익산시가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후계농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신규 청년후계농 65명을 선발하고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은 독립영농능력에 따라 월 90~110만 원씩 최대 3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정책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고정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청년후계농들에게 사업 추진 방법을 설명하고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 담당자가 청년농업인 농

지은행제도과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영농초기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임대할 경우 1순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과 신청방법을 교육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익산시는 2018년부터 7년간 청년후계농 317명을 선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진출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통해 가계 생활비를 보조하고 기반확보를 위해 후계농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농업경영인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 K-관광 대표 도시 도약... 관광객 유치 총력

익산시가 적극적인 관광 상품 홍보에 나서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에 참가해 익산의 9경(景) 3락(樂)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수 관광 상품을 소개했다.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는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주최하며, 케

이(K)-관광 콘텐츠로 차별성을 가진 우수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여행사 대표, 지자체, 관광공사, 재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테마·특화 상품과 지역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을 위한 교류 행사가 진행됐다. 익산시는 지역관광 상품 개발 설명회에서 익산의 9경 3락 관광지원 및

대표축제를 시티투어와 연계한 동행 백반 익산여행, 고백 익산 시티투어, 발발 투어 등 지역 특화 상품을 발표했다. 또한 관광업체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여행사 대상 상담회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4월부터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제 운영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성장시키고 배움을 통한 학습을 지역과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4년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 제도가 4월부터 시작된다. 2023년부터 시행한 평생학습 행복 포인트는 평생학습 강화를 수감하고 일상에서 연계된 활동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 내 이용 가능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어 시민들의 평생학습 동기부여 제공과 교육도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참여대상은 평생학습관, 밀명평생학습센터, 동네문화카페 등 평생학습을

수강하는 시민이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행복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평생학습정보방)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신청 포인트 조회, 도서 교환권 발급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군산시평생학습정보방) 및 방문(군산시평생학습관)을 통한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포인트 적립 방법으로는 평생학습 강좌 신청, 출석, 교육, 참여, 봉사 기록 등 일상에서의 활동한 내용이나 참여한 사항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포인트로 적립되고, 30인 포인트 이상 적립된 수강생에게는 포인트 교환권을 발급하여 행복 포인트 이용 가능 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2024 보석대축제 30% 특별할인 진행

보석 산업 중심지 익산에서 형형색색 아름다운 보석을 만날 수 있는 '2024 주얼펠리스 보석대축제'가 펼쳐진다. (사)주얼펠리스협회(회장 김대길)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28일 까지 왕궁면 소재 주얼펠리스와 보석테마관광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축제에서는 주얼펠리스 55개 업체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희귀한 보석을 만나볼 수 있으며, 30% 특별할인행사(24K, 다이아몬드 제외)를 진행해 보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우수작품 특별전시와 보석산업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소유한 보석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보석 재제작, 체험 활동 보석 가공 시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축제가 진행되는 보석테마관광지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실내·외 놀이체험시설인 다이노키즈월드와 있어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폐철도부지에 주민 어린이 위한 휴식공간 조성

군산시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광장 및 놀이터 조성사업이 작년 9월 공사 시작해 준공(2024년 4월 말 예정)을 앞두고 있다. 광장 및 놀이터 조성사업은 공설시장 옆 폐철도 부지(급암동 139-48일원)에 10,082㎡ 규모로 △다목적광장 △휴게 숲 △놀이마당(놀이기구 및 운동시설)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간 해당 부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쓰레기·불법건축물·무단 농작물 재배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번에 광장 및 놀이터를 조성해 불량한 경관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공설시장 주변 녹지 및 휴식공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전주매일 캠페인